

지방행정연수원생들 광주 창조마을 방문



전국 시·군·구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방행정연수원 제1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생 20여 명이 13일 광주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전남농협,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중수)가 최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청명한 농협,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남농협 제공)

광주우체국, 방문고객에 새해 선물



광주우체국(국장 엄원규)은 최근 우체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다과와 함께 새해 축하인사가 담긴 기념품(핸드크림)을 증정하는 고객사랑행사를 가졌다.

광주대, 20일까지 신입생 예비대학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13일부터 20일까지 2013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대학을 개설해 운영한다. 13일 개강한 예비대학 참석 학생들이 '난 졸업 전에 취업한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글자 하나하나 장인정신을 새깁니다”

40년 외길 손도장 인생 광주 임동 장국신 씨

장국신(69)씨는 북구 임동에 '대성사'에서 도장(인장)을 만든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도장을 새겨온지 벌써 40년. 그의 가게는 일반 도장집과는 모습이 다르다. 벽을 빼곡히 둘러싼 도장과 전각. 책상에 놓인 수십 개의 조각칼과 어울려 한쪽에 놓인 붓이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장씨는 1973년 대성사를 열었다. 서예와 조각에 능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자신이 사용하던 주판과 목각 인형에 직접 이름을 새겨주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자연스레 이 길을 택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때만 해도 보통 도장집에서 잡일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도장 일을 배웠습니다. 호기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이더군요.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야 했습니다”

장씨는 먼저 책을 통해 글씨체를 익혔다. 흔히 보는 '해서'와 달리 도장에는 '전서'가 많이 쓰인

다. 소전, 인전 등 여러 글씨체를 찾고 직접 적어가며 손에 익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장에 글 새기는 기술은 다른 사람의 자세와 칼을 쓰는 모습을 훑쳐보며 배웠다. 하지만 그렇게 배운 기술로 도장을 만드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컸다.

“힘든 적도 많았죠. 어떤 땐 공부 하다 3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고, 번 돈은 재료비나 책 구입비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좋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장을 손님에게 주는데 자부심도 있었어요”

아직도 장씨는 도장 하나를 새기는 데에도 정성을 다한다. 먼저 도장을 만들기 전 도장 크기에 맞게 글씨를 적어 보는 '인고'(인장 원고)를 작성한다. 이때 80번 정도 다룬 글씨체로 쓴다. 주먹(빨간분)을 칠한 후, 붓과 연필로 도장에 글씨를 옮겨 적는 '포자' 작업이 이어진다.

“글을 새길 때 가장 어렵죠. 크기에 따라 6개 조각칼을 사용합니다. 조각칼은 삼면에 날이 세워져 파고, 밀고, 세길 수 있죠. 칼을 쥐는 모양에 따라

단구, 쌍구, 악구법을 사용하고요. 보통 돌을 깎는 전각에는 '중봉', '편봉' 등 다른 조각칼을 써요. 가지런히 새기는 도장과 달리 전각은 거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글씨 주변을 두드리는 '탄편'을 하기도 합니다. '칼맛'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렇게 만든 도장에는 손님의 생년월일과 사자성이, 좌우명을 하나하나 새겨 넣어 준다.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한 번도 같은 글씨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는 '범오제'라는 자신만의 글씨체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도장은 예술이다”는 그의 자부심 섞인 말은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간다.

하지만 그는 요즘 고민이 많다. 그의 도장 기술을 계승할 인재가 없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키워낸 수제자들은 목도장 파는 기술만 배우고 모두 그를 떠났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직업의 식을 갖기도 쉽지 않은 일이나까...”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는 2008년부터 도전한 '인장공예명인'에 올리는 꼭 선발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명장이 되어 도장 기술을 하나의 문화로 승격시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공군 홍보 동영상 세계가 주목

현역 100여명 한달 촬영 '레밀리터리블' 유튜브 340만 클릭

“한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영화 '레미제라블'과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결합”(뉴욕타임즈) “내 군생활 최고의 영화다”(공군 블로그 id tarz)

최근 한국 공군이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레미제라블 패러디 홍보 동영상 '레밀리터리블'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인터넷 유튜브에 공개된 지 8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4시 현재 조회수가 344만 9055건에 달했다. 뉴욕타임즈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의 인디펜던트와 텔레그래프도 언급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레밀리

터리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역을 맡은 배우 러셀 크로우가 트위터에 동영상을 리트윗 할 정도로 잘 제작된 한편의 패러디 영화가 '강남스타일'에 이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동영상은 현역 공군 장병·장교 100여 명이 한달간 기획부터 연출, 촬영, 연기까지 담당해 100여만원으로 제작된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1일 국제면을 통해 '레밀리



'레밀리터리블'이 싸이의 강남스타일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동영상의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정렬기자 halo@

전남대 류재한 교수 亞문화학회장

전남대학교 류재한(불어불문화과, 유라시아연구소 소장)교수가 아시아문화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학회는 최근 조선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류재한 교수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15년 2월 까지 2년이다.

아시아문화학회는 아시아 문화 관련 학문적 연구의 다변화와 다양화,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산업의 대중화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학회는 앞으로 아시아문화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학문적인 기초 연구, 이를 토대로 한 콘텐츠 개발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수환 추기경 선종 4주기 추모행사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4주기를 맞아 16일 김 추기경을 기리는 추모의 밤이 열린다.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 추기경의 삶과 사랑을 담은 추모 영상 상영과 함께 평소 고인을 존경했던 지인들이 나서 갖가지 인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연합뉴스

서암문화재단, 1기 장학생에 장학금 호남대 국제요리대회 메달 싹쓸이

8명에 2000만원... 15일 수여식

화천기공은 지난 2010년 창업자인 고(故) 서암 권순관 명예회장(사진)의 문화·예술 사랑의 뜻을 이어 받아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을 설립했다.

출발 첫해부터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을 제정, 지역 예술인들을 격려했던 재단은 올해 제1기 서암문화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15일 오후 2시30분 서암문화재단 사무국(화천기공(주) 테크센터)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공모·추천을 받아 선정된 장학생은 오한민(조선대 미술학과 1년), 제셋별(전남대 국악과 3년)씨 등 대학생 4명과 나승연(광주예술고 1년)군 등 고교생 4명을 포함 모두 8명으로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받는다. 선정된 학생들은 판소리, 서예, 한국무용, 한국화 등 전통문화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재단측은 이번 첫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원범위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전통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합동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서암문화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 공연 및 전시 지원, 전통문화 인계 양성 및 장학 지원,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지원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대학교 조리학과 학생들이 국제요리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조리명인의 위상을 과시했다. 문헌식 교수의 지도로 지난 2월 6일부터 10일 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1회 터키국제요리대회'에 출전한 호남대학교 조리학과 오용진(2년)군은 '메인' 부문에서 금메달, 생선라이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또 대한민국(1년)군은 육류 뷔페와 40분 메인 라이브 종목에서 은메달 2개와 생선뷔페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만화도인 서재호(1년)씨는 생선요리부문에서 은메달 1개와 아시안 뷔페와 육류 뷔페 종목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터키 국제요리대회는 WACS(세계요리사협회)공식인증 대회로 24개국 1200여명의 요리사들이 참여해 경연을 벌이는 세계적인 요리 축제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왼쪽부터 한민국·서재호, 오른쪽 두번째 오용진, 세 번째 문헌식 지도교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종순씨 차남 김명준군 김진구(상일여고 교장)·김형남(전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씨 자녀 지승양=16일(토) 오후 3시 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 ▲장정혁·함중윤씨 장남 우석군 한승주(전 광주일보 예방부장)·김덕남씨 자녀 디래양=16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하우스 본 오스텝1층 단독.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8일(월) 오후 7시 수립식당 062-223-0028. ▲광주공고총동창회 2013년도 정기이사회·총회 및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이임회장 김영진·취임회장 홍석태)=26일(화) 오후 6시30분 북구 매곡동 총동창회 사무실(역사관 3층) 062-511-1946, 070-4235-194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오지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지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재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

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밀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모집

▲중3 Winter school 수강생=고교생 국·영·수 공부방법, 성공적인 고교 생활설계, 나에게 맞는 진로 탐색,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 고교생활과 이성 교제 등 고교 신입생을 위한 새학기 특강 25일~26일(2일간·선착순 50명) (사) 광주 청소년 교육문화원 010-5616-7842.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6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2646-5023.

▲(사)대한치어리딩협회 광주·전남 광역지구 사무처 사원=사무처 운영팀 업무, 4대보험 가입 및 주 5일 근무,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컴퓨터 활용능력 상급 능력자 우대. 062-367-5577, 08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서비스 제공 062-233-0468.

▲(사)인재육성아카데미 4기 교육생(http://mdsarang.com)=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수료생 기업 취업률 82%, 기업실무, 구직실제훈련, 예비신입사원훈련, 서울오리엔티어링, 배낭구직활동, 품성교육 등 광

주전남소재대학교 2~4학년. 062-224-7733. ▲탁주·약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조선대 평생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 062-370-8211.

부음

▲김순화씨 별세 윤정원(보성중치초등학교)·동원(광주변호사협회)·영옥씨 모친상 손경희·박기순(그린화재)씨 시모상=발인 15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문연희씨 별세 손재호(육려연고)·경호·순영씨 모친상=발인 15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최중현씨 별세 광호·민호(행복치과)·덕호(최덕호성형외과)·은숙씨 부친상 반일환(반치과)씨 빙부상

=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고노림씨 별세 정선호(전남도 환경청장 정동욱(산학협력단장 겸직)·전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순현(현대자동차 과장)·순태(재영업)씨 모친상=발인 14일(목) 그린장례식장 2층 7호실 062-250-4455. ▲최복록씨 별세 겸사·유옥(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천석·은석·필석·을석(대덕건설

회장)·승애·승이·승덕씨 부친상=발인 14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금주씨 별세 기형서·차서·현도보건환경연구원장)·순현(현대자동차 과장)·순태(재영업)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주남업씨 별세 오판진·판용·판용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최정남 (남/70세) 子/子嗣: 허광수/서인숙, 상수/비밀자 女/妻: 허은자/서진도 ●호상: 2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신순경 (여/71세) 子/子嗣: 김원태/김진숙 女/妻: 김현숙/김주태, 영숙/김용준, 미숙/박근호 ●호상: 301호 ●장지: 화산 이양 선영
故 김경수 (남/51세) 子/子嗣: 김영문, 영철, 영준, 영도 女: 김정자, 은자 ●호상: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박기순 (여/94세) 子: 김영문, 영철, 영준 ●발인: 2월 15일 ●연락처: 227-4381 ●호상: 102호 ●장지: 영락공원

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